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발소, 뷰티숍 및 미용실 서비스 보호를 위한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인들로부터 이발소, 뷰티숍 및 미용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S.6343-A/A.10574)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발소, 미용실 또는 뷰티숍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미지급 등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새 법률은 이를 A급 경범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용실과 이발소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타 소규모 자영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무의미한 허점을 종식하고, 법에 따라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로 우리는 서비스 요금 미지급을 방지하고, 뉴욕 전역의 미용실, 뷰티숍과 이발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자영업은 버팔로에서 브루클린에 이르는 지역사회의 초석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종종 생깁니다. 서비스 요금 미납에 대해 기소를 허용하도록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온종일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 업주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비스 요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개인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므로 특정 소규모 자영업 업주가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발소, 뷰티숍 또는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비물질적 제품을 제공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입니다.

Marisol Alcant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뷰티숍,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 소규모 자영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후원에 의존하며, 개인들이 지역 비즈니스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면 그들의 재정적 위험이 커집니다. 이 법안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이 보호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해 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Alicia Hynd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발소 및 미용업 유자격 분야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개인은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이제까지의 보호 방식과는 다르게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상인들에게 보호 및 법원 대리를 보장해 준 Cuomo 주지사 와 동료 Alcantara 상원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